

# 명맥만 유지 '양잠업'... '입는 양잠'→'먹는 양잠' 탈바꿈해야

### 전남 지난해 재배농가 300호 불과...2016년 753호서 60% 급감 농가 80% 연 1000만원 미만 소득...건강 식품 등 산업 변화 추세

기능성 양잠(蠶繭·누에) 산업 소득 감소와 농촌 고령화 영향으로 전남지역 재배농가가 5년 사이 60% 급감한 3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잠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소득원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기능성양잠산업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기능성 양잠 재배농가는 300호로, 1년 전보다 20호(-6.3%) 감소했다. 5년 전인 2016년 753호와 비교해서는 60.2%(-

453호) 줄어든 규모다. 전남 양잠 재배농가는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3년 947호에 달했지만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양잠 재배농가는 전북이 463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311호), 전남(300호), 경남(169호), 충남(91호), 충북(84호), 경기(82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재배농가는 28호로, 전국 8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기능성 양잠 재배농가를 작물별로 보면 뽕나무 열매인 오디 농가가 250호로 가장 많았다. 양잠이 41호로 뒤를 이었고, 둘 다 재배하는 농가는

9호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는 누에 21ha, 오디 79ha 등 총 99ha의 면적 농사를 짓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재배농가는 1년 전보다 오디 19호, 양잠 10호 각각 줄었다. 전남에서 동충하초나 생사(생명주실) 등 누에고치 생산량은 줄었으나 오디 생산량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남 오디 생산량은 276t으로, 1년 전보다 1.4%(4t) 늘었다. 이는 전북(375t)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외 전남 생누에 생산량은 지난해 6.4t으로, 전년(0.6t)의 10배 넘는 수준으로 뛰었다. 열풍 건조누에(2.8t~4.7t)와 냉동 건조누에(0.3t~0.8t)도 생산량이 늘었다. 반면 뽕잎 생산

량은 같은 기간 4.5t에서 4.1t으로, 10%가량 감소했다. 한때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양잠업이 쇠퇴하며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데는 외국 값싼 누에고치 수입과 노동력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 양잠업 농가 300호 가운데 경영주 나이가 71세 이상은 48%인 144호에 달했다. 이어 '61~70세' 93호, '51~60세' 47호, '41~50세' 12호 순이었으며, '40세 미만'은 4호에 불과했다. 연 소득을 따져봐도 1000만원 이하인 농가가 81.3%(244호) 비중이 달했다. 1000만~3000만원을 번다는 농가는 33호로 나타났고, 3000만~5000만원 11호, 5000만~1억원 11호 등 순이었다. 소득 1억원 이상은 1곳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양잠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우량 누에씨를 해마다 공급하고 있다. 올해 가을철 누에 사육기를 맞아서는 순천, 나주, 화순 등 10여 개 시·군 양잠 농가에 자체 생산한 우량 누에씨 270여 상자를 지원했다. 최근 양잠업 작물은 건강 기능성 식품·생명공학 연구 소재로 쓰이면서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산업 동향이 변화하는 추세다. 동결건조 누에가루 원료는 당뇨병 치료제 생산에 쓰고 솜뎀대기를 이용한 강장제, 익은누에를 이용한 간기능 개선 제품, 누에동충하초를 이용한 면역력 증강제품, 화장품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인공배, 인공고막 등 생명공학 소재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양잠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2회 농업관측 논문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구원 제공>

## 전남대 '농업관측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 주산지 집중률 영향 실증분석 연구

전남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회 농업관측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식품정책학회·한국농업경제학회·한국축산경영학회가 공동 주관한 '2회 농업관측 논문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18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다양한 농업 관측모형을 개발해 자료 기반 관측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0년 도입한 실측조사 자료를 개방해 연구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대회는 채소류, 축산물, 자유 주제, 대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채소류는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5개 주요 품목 수급 예측을 연구하고, 6개 축종에는 한우·돼지·젓소(낙농)·육계·산란계·오리가 포함됐다. 대회에는 주요 채소류 6건, 축산물 15건, 자유 주제 16건, 대학생 15건 등 모두 52개 연구 계획서

가 제출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연구 결과물에 대한 독창성, 적합성, 타당성, 기여도를 평가했다. 이중 농업관측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살펴봤다. 대학생 분야 최우수상(장관상) 수상작에는 전남대학교 김현영씨 외 2명이 선정됐다. 전남대는 '기후변화 시대, 주산지 집중률이 가격변동성과 농업관측에 미치는 영향'(주산지 집중률 영향 실증분석)을 연구했다. 전남대는 자유주제 부문에서도 '수입 과일과 국산 과일·과채의 동시적 인과성을 반영한 과일·과채의 단기수요추정 방법 연구:수입 오렌지를 중심으로' 연구(손찬호 외)로 장려상을 받았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우수작 18편을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aglook.krei.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수급모형 개발과 관측기법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김춘진 aT 사장 한베 경제협력포럼 대표 발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 경제협력포럼 2022' 행사에서 대표 발표자로 참석해 발표했다. 이 행사는 지난 16일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김 사장은 발표에서 핵심어 3개를 들어 식품산업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핵심어에는 식품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푸드테크(FoodTech)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건강식품 인기 및 한국 대표 건강식품 '김치' 소개와 '김치의 날' 확산 등이 포함됐다. 발표에 이어 송정호 롯데프리미티스하노이 대표와 짠 공 탕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전략정책연구소(IPSARD) 소장, 신영화 K-마켓 총괄 사장 등과 농수산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비전 제시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가운데)이 최근 기아와 협력해 지역 농업인 영농차량을 무상 점검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임곡농협, 영농차량 무상 점검·수리

### 기아자동차와 협력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임곡농협과 기아가 협력해 지역 농업인을 위한 영농차량 무상 점검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임곡농협은 기아자동차 창고에서 지역 농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차량을 종합 점검·수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워셔액을 보충하고 와이퍼를 교체해주는 등 간단한 수리도 해줬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바쁜 영농철에 이상을 발견했지만, 여유가 없어 미뤄왔던 영농차량 정비 서비스를 기아와 협력해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농협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수자원공사, 가뭄 식수난 섬주민에 생수 지원

### 자체 생산 병물 신안 섬에 1500병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가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 섬 주민들에 병물 1500병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안 섬은 최근 가뭄을 겪으며 물을 저장할 유역이 협소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병물을 공급한 신안군 비금

면은 지속적인 가뭄에 따라 수원지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생산한 비상 급수용 병물(1.8ℓ) 1500병을 신안 지역에 공급했다.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앞으로도 신안 섬 주민들의 제한 급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수목장\*자연장 전문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